

日,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수습 대상'서 제외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법' 한반도 출신 일제 희생자 배제 보추협, 2004년 한일 정상회담 유골봉환 합의 이행 요구

일본이 전사자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에서 일제 강점기에 동원된 한반도 출신 희생자 등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일본 국회에 따르면 2차 대전의 전사자 유골 수습 사업을 종합적이고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전몰자의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이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일본 정부가 유골 수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을 담당할 법인을 지정하게 하는 등 유골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수습 대상 유골을 '우리나라(일본) 전몰자'의 것으로 규정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전사한 한반도 출신 희생자를 배제했다.

법안은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현재 참의원외 폐회 중 심사를 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유골 수습 파악을 위한 DNA 감정 등에 유족 발굴 사업에 한국인 유족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유족 가운데 일본군으로 끌려가 전사한 혈육의 유골을 찾고자 자신들의

DNA를 일본 정부가 채취해 신원 확인에 활용하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전쟁 중에는 조선인을 자국민으로 간주해 동원해놓고 사후 수습에서는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유골 수집 사업 자체가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전사한 한국인 희생자 유골 문제를 뒤로 미루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사업과 사업 추진실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측에 최근 보낸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가 벌이는 유골 수집귀환 사업은 해외에서 전사한 일본인 전사자의 유골을 일본에 송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또 유골 발굴 과정에서 "유류품 등에 의해 한반도 출신자라고 생각되는 유골이 나오는 경우 수습하지 않고 현지 정부 기관에 통보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00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유골 봉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 몇 차례의 성과가 있었던 경위를 거론하며 일본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사항이 유효하다면 한국 정부가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일본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일본 정부 당국자를 만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中, 방공식별구역 남중국해 확대 시사 미군 인공섬 해역 이지스함 투입에 반발

미군 함정의 중국 인공섬 해역 진입에 대해 중국군이 남중국해에 대한 방공(防空)식별구역(CADIZ) 선포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군 건설, 해양대국 건설을 기치로 내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는 취임 원년인 2013년 11월 24일 동중국해 상공에 사상 처음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며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었다.

영공과는 별개 개념인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선을 뜻한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을 통해 이 구역에 지나는 모든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중국은 특히 공중안전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얼마든지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와 서해(황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남중국해 등으로 확대 여부에는 "우리는 중국과 남해(남중국해) 주변국들과의 관계, 남해 지역 상황의 안정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며 당장 확대할 가능성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군이 중국의 인공섬 해역에 첨단 이지스함을 투입해 군사 작전을 전개함에 따라 남해 지역 상황의 안정이라는 전제조건은 사실상 깨졌다.

외국인인 미국이 남해에 군함을 파견한 것은 중국의 국가안전에 대한 도발, "남해 지역을 군사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협력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방공식별구역 확대의 직접적인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봉황(鳳凰)위성TV에 따르면 중국군의 대표적 강경파 인사인 튀위안(이중) 소장엔 "미국의 도발적 행동은 (미중) 대형대국관계 건설 약속과 남중국해에 대한 약속을 깬 것"이라며 "법적 측면에서 남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 함정이 진입했던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쩡영사군도)에 영해기선을 선포하고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 이하 9단선)의 모호한 범용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아프간-파키스탄 강진

사망자 400명 넘어서

26일 오후(현지시간) 파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힌두쿠시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다.

애초 접근이 어려운 오지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지진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교통·전기·통신 두절에 치안 불안까지 겹치면서 정확한 상황 집계와 구조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진원의 깊이가 212.5km로 비교적 깊은 탓에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넘어 인도는 물론이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만큼 넓은 지역에 지진 영향이 미친 것도 피해 집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27일 오후 이번 지진 사망자가 74명에서 11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가니 대통령은 부상자는 538명이며 9개주에서 주택 7630채와 학교 12곳, 시원 17곳, 사무용 건물 20곳이 부서졌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사망자가 310명, 부상자가 2000여명으로 파악됐으며 주택도 4000여채가 무너졌다. /연합뉴스



'핫핫' 메리 크리스마스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클로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시민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무더운 날씨 탓에 반팔, 반바지 차림이다. /연합뉴스

미 국방 "이라크·시리아서 IS 공습작전 펼칠 수도"

미국이 수니파 무장반군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제한적 지상전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등 점점 미군의 개입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에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IS 격퇴된 진행 상황과 향후의 대책을 설명하면서 "IS에 맞서 싸우는 현재의 유능한 파트너

군대를 지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런 임무를 위해 전투기를 이용한 공습 또는 지상에서의 직접작전을 수행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이 언급한 지상 직접작전은 IS 목표물을 겨냥한 미군 특수부대의 선행적 기습작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자회견

에서 지난 22일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의 하위 지역에서 IS에 억류된 인질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조슈아 윌러 미군 상사(39)가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당시 작전은 정상적인 이라크군 자문·지원업무의 연장선으로, 앞으로 이런 종류의 기습작전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기습작전은 델타포스와 같

은 미군 특수부대가 직접 전투에 투입되는 일종의 제한적 지상전이나 다름없어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카터 장관은 이날 윌러 상사가 사망한 기습작전의 성격에 대해 "전투"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도 "내가 백악관에 한 제안에는 모든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 지상군 투입 및 지상전 수행 방안을 공식 제안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소시지에 발암물질" ...가공육 생산국 '발끈'

세계보건기구(WHO)가 소시지(사진)·햄· 핫도그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해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자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이런 식품을 즐겨 먹는 나라의 정부가 반발하며 국민 안심 시키기에 나섰다.

27일(이하 현지시간) AFP, dpa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슈미트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성명을 내 "아무도 브라트 부르스트(소시지) 먹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안드레 루프레히터 농림환경수자원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햄을 석면과 같은 위치에서 놓는 것은 엄청난 난센스이며 단지 사람들을 동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아예 이번 일을 희극 정도로 규정했다. 버나비 조이스 호주 농업부 장관은 호주 ABC방송에 "소시지를 담배에 견주다니 전체를 희극으로 만들 어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르 마 햄의 본고장 이탈리아 농업협회 롬바르디도 성명을 내 "육류 테러는 안 된다"며 "이탈리아 음식은 가장 건강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유엔, '美 쿠바 무역금지 해제 촉구안' 채택

유엔은 27일(현지시간) 총회를 열어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91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

반대한 국가는 올해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한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유엔총회가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올해로 24번째다.

올해 채택한 해제 결의안은 미국이 취한 무역제한 조치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쿠바는 무역제한 조치로 지금까지 8300억 달러(940조8500억 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레식당 건물

토지 2,211㎡(668평) 건물 4,218㎡(1276평)

- 파격적인 임대조건 (보증금 및 차임)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문의 010-7570-7525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용봉동 굿모닝타운 2층상가 매매

- 전용289㎡ 현재 카페 인테리어+체육시설적합 공실포함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